



自然景觀과 人間生活

朴 炳 柱

우리나라의 自然景觀은 世界에서도 가장 뛰어난 아름다움을 지닌다고 自他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自然環境도 國土空間 全域이 모두다 秀麗할 수는 없는 것이고 各地域空間의 여러 레벨에 對應한 自然景觀의 價値評價가 다르게 마련이다.

흔히들 韓國의 自然景觀을 代表하는 곳이 國立公園이기에 우리나라 國立公園의 特徵을 外國의 國立公園, 그 가운데서도 美大陸의 國立公園과 비교하는 수가 있기도 하는데 大陸型과 같은 原始自然保存型의 雄大함은 없지만, 그런곳에서는 볼 수 없는 纖細優美하며 壯快함이 겸한 自然風景의 構成이 四季의 變化와 더불어 魅力的인 自然景觀으로서 “어필”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人間生活과 自然環境과의 對應關係가 보다 體系的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데 대한 關心은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住居環境과 綠地, 都市와 綠地環境, 地域環境에 對應한 自然景觀의 保護·保全 그리고 育成을 부르짖게 되고, 그래서 장래에는 自然公園의 存在가 野外의 “레크리에이션”의 터전으로서도 重要視하게 될 것이다.

이 機會에 우리나라의 自然景觀(=自然風景)의 實態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고 넘어가자. 우리나라에서 綠地環境에 크게 問題가 된것은 1970년부터의 일이다. 1940年代까지만 하더라도 市民의 日常生活의 난방·炊事燃料가 薪炭에 의존하다시피 하여 伐木을 했지만 그래도 林產資源의 스톡이 있었는데, 6.25전쟁으로 山野의 樹林은 荒廢化하였다. 山에 나무가 없다보니 集中豪雨에 따른 河川氾濫이 일어나고 그래서 自然災害와 山林과의 關係를 再認識하기도 했다. 험벗은 山野·傷痕 투성이의 山野로서 비쳐지는 곳에는 不安과 갈등이 있을 뿐, 希望이나 安全·快適함 같은 마음이 감돌 수는 없는 것이다. 山林綠化의 必要性을 풍요로운 林相의 存在價値의 重要함을 우리는 그 當時 뼈저리게 經驗했다.

1960年代의 工業化政策에는 工場廢水處理의 未備에 따른 水質汚染 같은 것이 어떤 惡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事前知識이 政策的으로 全혀 配慮되지 않은채 우선 보리고개를 넘겨 놓고 보자는 식으로 經濟伸張에만 血眼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全國의 河川은 거의가 自然淨化의 限度까지도 넘어버려 汚染이 極度로 深刻해졌고 이런 汚된은 水質이 浸透한 土壤도 惡化되고, 여기

서 生産되는 作物 또한 害毒이 있기 마련이어서 自然의 生態系은 큰 混亂을 일으키고 말았다.

工業化, 近代化의 이런 물결로 都市에의 人口集中이 急激하게 進行되고 既存都市의 內部에서, 그리고 都市擴大에 따른 宅地 需要의 增大로 宅地가 細分割化하였다. 그 結果 그 前에 비교적 여유있는 土地위에 庭園樹가 많았거나, 居住環境에 隣接해 있던 自然綠地가 온통 消滅되고 말았다는 點이다. 市街化 進行當時에 그나마 남겨두었던 公園이나 山林, 綠地도 그뒤 學校 시설이나 公共廳舍의 用地로서 탈바꿈을 하는등 都市의 綠地空間은 名目上의 口實정도로 매우 狹小하게 남아있는 實態에 있다.

海岸埋立의 경우에서도 無謀한 事例를 많이 본다. 海上에서 보는 海岸景觀도 겸하여 保全해야할 아름다운 自然景觀마저도 土取場(盛土工事)의 低廉化를 위해)등 이유로 切土하는 경우를 보거나, 그 아름다운 海岸線의 存在를 없애버리는 海岸埋立이 進行되기도 한다.

우리들이 盆栽를 가꾸고 조그마한 마당에도 나무를 심고, 住宅의 베란다에서 꽃을 가꾸는 마음은, 우리들의 生活속에 自然을 導入시켜보려는 뜻이 强하게 作用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든 우리의 山野에 울창한 森林을, 보다 깨끗한 水質의 물이 河川, 그리고 湖水 가득히 담겨져 있어야 하고, 自然의 活力이 넘치는 海岸線이 더 많이 保全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國民所得이 1人當 4,000\$이 넘었으나·상대적으로 國民 各自의 生活에 余裕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 自然에의 愛着이 더해갈 것이므로 自然을 가꾸는 政策에도 그만큼 關心이 많아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 機會에 우리의 國土空間 속에 반드시 保全되어야 할 自然景觀은 어떤 範域의 것이며 保護되어야 할 自然景觀은, 保全, 保護와 調和를 이루면서 開發할 수 있는 對象은 어떤것인가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作業은 即興의일 수는 없는 것이고, 基礎資料의 調査分析과 既存 自然公園計劃(國立·道立公園計劃등)도 每5年의 調査를 거친 計劃 調整의 制度화 등도 必要하다는 點을 附記해 둔다.

[工博·本會理事·弘益大學校大學院長]